

08.03.2008 (주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 7:7)

24 시간 안에 편지나 소포를 세계 어느 곳이라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운송업체의 꿈은 예일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한 학생의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유산으로 물려받은 4 백만불을 투자하고 또 7 천만불을 융자로 얻어서 14 대의 비행기를 구입하여 25개의 도시에 하룻밤 사이로 어떤 물품이라도 운송해 주는 FedEx를 설립한 Frederick Smith가 바로 그 학생입니다.

당시 그의 교수도 그런 회사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세계적인' 생각을 황당하고 우습게 여겼지만 현재 이 회사는 하루 3백만의 tracking을 처리하기 위해 전세계 약 200 개의 국가를 700대의 비행기, 8만대의 트럭, 5만명의 직원으로 움직이는 380억불의 잇가의 세계적인 운송업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해냅니다. 꿈을 실천하는 사람마다 구하며 찾으며 두드립니다. 세상 만사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어기지 않습니다. 안 뿌리면 못 거두고 뿌리면 거둡니다.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것을 거둡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것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6:9)!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시공간면에서 볼 때에 공간적으로는 점점 가까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다가 찾은 후에는 그 속에 있는 것을 열어보는 현실입니다. 시간적인 면에서는 내가 점점 성숙해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다가, 조금 생각할 나이가 되어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다가, 장성해서는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구하며 찾으며 두드립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은 매우 소망적입니다. 참 소망을 이루려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구한 결과는 언제나 성취적입니다. 따라서 마 7:7 말씀은 구함에 대한 주심을, 찾음에 대한 발견을, 그리고 두드림에 대한 열림을 확신케 해주는 소망의 시작이며 성취의 원인입니다!

구하라! '아이테오'는 묻다 또는 간청하다는 뜻입니다. 마 6:33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해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마음을 배워서 기도하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마 21:22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다 받도록 하여 줍니다.

찾으라! '제테오'는 애써 찾다, 열망한다, 갈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십자가로 찾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고전 1:18-24 볼 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배워야 됩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두드리라! '크루오'는 결사적으로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인내하기 때문에 열릴 때까지 두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절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까지 나의 닫혀진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려야 됩니다. 문이 열려야 더 이상 벽이 아닙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말씀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 21:12 볼 때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 문이 12 개가 있는데 12 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블론이라는 지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뜻은 '같이 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은 말씀과 영원히 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의 이름이 '거함'입니다. 창 49:13 볼 때 "스블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 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했습니다.

바다에서 큰 바람과 물결로 고생하던 뱃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쉬어갈 수 있도록 침터를 제공해 주는 해변가 그런 침터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히 11:1).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길만이 찾는 길이며 그 찾음은 영원한 열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주저하거나 낙심 말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닻과 같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경건해지도록 튼튼하게 견고하게 해줍니다 (히 6:19).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경건하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해서는 복음의 문이 동네마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